

다산포럼

연구기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 준비에 반대했고, 류성룡은 이를 두둔했다. 이들은 같은 동인 계열 당파 소속이었다. 그 결과 조선 민중은 임진왜란의 참혹한 대전란을 겪어야 했다. 이는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나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예일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의 늪 속으로 깊게 빠져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득 하위계층이나 자영업자일수록 실업 상태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고사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역 상권의 소비와 매출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것인가? 소상공인에게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 사회적 정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시장 골목의 활기, 증가하는 매출에 주름살이 퍼지는 점포 상인들의 표정을 떠나서는 달리 측정될 수 없다. '조세연구원에 아예 대기업을 들이라'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분노는 세상 지역화폐의 효과를 심각하게 한다. 현장의 절박함이 이미 연구의 수용성을 압도하는 셈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한 뼘 한 뼘 써 내려가는 보고서는 키보드로 찍어 내는 모니터 안의 활자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바뀔 서민 대중의 민생 현장이자 한국 사회의 미래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연구자는 보고서에서 도출된 정책의 사회적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찌 그 책임을 방기할 수 있을 것인가?

중립적이고 윤리적인 자세는 연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중립을 지킨다면 독립운동에 눈감은 것이 중립일 수 없으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형식적 규칙을 지킨 것이 윤리적이고 할 수는 없다. 데이터가 보여 주는 숫자의 세계가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해도 땀 절은 서민 대중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연구하는 자는 오히려 가까운 곳은 망원경으로, 먼 곳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흑이나 농친 것은 없는지 다시금 살펴야 한다. 연구자는 서민 대중이 겪고 있는 냉엄한 삶의 현실을 몸으로 맞닥뜨리면서 세계를 관찰해야 하며, 기계적 중립성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현대의 조직은 내적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책 연구기관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전문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과업을 안고 있다. 확장적 재정 지출에 신중하다고 알려진 기재부나 기재부장관조차도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등의 발행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에 1조 8000억 원을 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기관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으며, 소규모 지역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전혀 반대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관계자는

"정치 개입 의도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절차도, 자료도, 논리도 부실한 상태로 결론만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었다. 백번 양보하여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곧장 온누리상품권과 대형마트를 옹호하는 차원으로 치환될 수는 없다.

또한 연구의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곧장 정책으로 직결되어서도 안 된다. 정책은 다양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생계가 좌우되고, 정책 시행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책임도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국책 연구기관이라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은 업무적 이해 당사자와의 특수 관계로부터 자립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하며, 정략적인 정치 논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책을 연구하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해관계에 얽매어 정략적 입장을 편파적으로 내세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지역화폐 논쟁에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社說

21대 국회 첫 국감, 정정보다는 대안 제시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은 벌써부터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고 전방위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버리고 있다. 또한 추미에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군 감청 철폐의 무차별

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도 핵심 이슈로 꼽히는데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국감을 보면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당은 정부 임호에만 급급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세를 퍼부으면서 국민의 정치 협조증을 유발한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하나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냉철히 비판하되 특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많은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조비오 신부 모독 전두환 씨 엄벌 당연하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에게 검찰이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어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편지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로 모아졌다.

하지만 5·18 당시 헬기에서 총을 난사한 계엄군의 만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헬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

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일발당에서 발견된 수백 발의 탄흔이 헬기 사격에서 비롯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측 증인들도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전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버젓이 골프 회동을 즐기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5·18에 대해서도 속죄와 참회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북한군의 폭동'이라며 역사 왜곡을 일삼았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의 구형량은 법정 최고형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5·18 관련 마지막 사법처분이 될 수 있는 선고 재판에서는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A 교수는 오래전부터 꿈꿔 온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60세 즈음에 교단을 떠났다. 퇴직 후 국도변의 문 닫은 건물 한 쪽을 빌려 개인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고전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꾸렸다. 책들로 가득한 내부 공간에는 은은한 다향(茶香)이 배어 있다. 그는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녹차를 대접한다. 새 잎이 돋는 봄에 참새 햇바닥 같은 햇살을 채취한 뒤 손수 덕어 만든 차다.

40대의 B씨는 옥상을 개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최상층에 일부러 입주했다. 그리고 그 옥상에 천 채방울경을 설치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거리의 상징 간판을 보면 거의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어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울 정도이다. 자칫 잘못하면 외래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식하고 현대적이며 개척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한글조차도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훌륭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잘 다듬고 가꾸면서 사랑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훌륭한 한글을 가진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공통어가 되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창달하고 애국애족하는 길이다.

인생의 정원사

직접 물고 지구를 일주하거나 숲속에서 자연인처럼 주말을 보내는 일, 약기를 배워 연주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나무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일 등등. 사람들은 누구나 저만의 '오티움'을 꿈꿀 것이다.

수년간 많은 사람을 만나 '오티움'을 살펴본 저자는 "그들에게 여기는 삶의 정원이었고 그들은 인생의 정원사였다"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도 삶의 정원에 좋아하는 꽃씨와 모둠을 심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 내가 길러낸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경제이야기

이상한 놈



이정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얼마전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자랑스러움을 넘어 가슴 벅차고 흥분된다. 도대체 얼마나 멋진 음악이길래? 궁금하여 유심히 들어보았다. 아나니 다들까? 도통 모르겠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과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떻게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천하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할 수 있었지?

나이 들수록 서글프고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최신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30여 년 전에는 필자도 대중음악을 온몸으로 즐기던 팔팔한 세대였다. 특히 1991년은 7080세대들이 심취했던 발라드, 포크, 트로트류의 음악이 막바지 절

정을 이루던 시기였다. 당시 조용필, 이선희, 태진아, 노사연, 김완선 등이 이름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스타였다. (1992년 이후에는 서태지와 합창 음악이 등장하면서 대중음악계는 지각 변동을 겪게 된다.)

1991년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로부터 가냘픈 몸매와 장발에 귀걸이를 하고, 여성적인 웨이브로 흐물흐물 춤을 추는 교포 가수가 나타난다. 대중들은 '들보장' 패션과 괴이한 음악 장르를 이해할 수 없었고, 21세기형 음악 천재는 20세기 감성에 머물러 있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한 놈' 양준일은 한국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난 2019년에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와 똑같은 춤과 음악으로 재등장했고, 21세기 한국의 대중들은 신비롭고 우아한 그의 춤과 노래에 신드롬급 반응으로 응답한다. 30여 년 전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필자도 뒤늦게나마 그의 노래 '리베카'를 수시로 즐기며 미안함을 달래 본다.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들은 항상 '이상한 놈'으로 치부 받는다. 서양 미술 역사

상 최고의 천재 화가로 인정받은 빈센트 반 고흐도 37년의 짧은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할 때까지는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자화상' 등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익숙한 그의 작품 세계는 사후 10여 년이 지난 후부터야 인정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칭송받는다.

최고의 혁신 아이콘으로 인정받은 테슬라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도 초창기에는 실패를 거듭하는 '이상한 놈'이었다. 화성에 가겠다는 꿈 하나로 미국 최초의 민간 우주항공업체인 스페이스 엑스를 창업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로켓 발사에 도전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2008년 세 번의 발사 실패와 전기차 테슬라의 출시 지연으로 힘들 때 머스크의 '실패'를 높이 평가한 NASA가 1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지금은 가장 저렴한 우주에 물건을 날라 주는 유일한 민간 우주업체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발사 스케줄이 꽉 차 있다.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제조

업 기반이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나머지 청년층의 유출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기업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허약한 경제 체질, 수도권과의 격차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쉽사리 좋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때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상한 놈'의 이상한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구역 통합 노력은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게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상한 아이디어'로 치부한다. 벌써 두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던가? 왜 실패했나? 이상한 놈을 이상하게만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근시안 때문이다.

30년 전에 대중이 양준일의 천재성을 알아봤다면 대중음악은 좀더 일찍 풍성해지고 발전했을 것이다. 광주-전남은 부디 '이상한 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기고

세계 문자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글'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1446년(세종 25년)에 한글을 창제한 지 어언 574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해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없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한때 우리 한글이 세계 문자올림픽대회에서 제1회와 2회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문자학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세계문자올림픽대회에서 한글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대회에는 한글,

영어, 러시아, 독일 등 27개 문자들이 경쟁했으며, 각국의 학자들이 30여 분씩 자국 고유 문자에 대한 우수성을 발표했다.

심사 기준은 ①문자의 기원 ②문자의 구조 ③글자의 수 ④글자의 결합 능력 ⑤문자의 독립성 및 독자성 ⑥문자의 실용성 ⑦문자의 응용 개발성 등을 기초로 평가했다. 세계 문자올림픽은 가장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우며,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아내기 위한 취지로 열리고 있다. 우리 한글은 16개국이 경쟁했던 2009년 대회에 이어 또 다시 1위를 차지하여 그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대회 마지막 날 참가한 각국의 학자들은 '방콕선언문'을 발표하고 자국에 한국어 전문학과와 한국어 단기반 등을 설치하는 등 한글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날 채택된 방콕선언문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국가들과 유네스코에 전달됐다. 이처럼 우리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

는 알파벳'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샤프슨은 한글을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세계의 슬픈 문자 중에서 장제 이유와 근거,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이 밝혀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바로 세계 문자올림픽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 한글은 우리 스스로 필요한 글자를 만드는 자주(自主)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 정신, 널리 글을 알리 사람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겠다는 실용(實用) 정신이 녹아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글이다. 오늘날 한국은 한글 덕분에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을 세계 문맹퇴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의 말과 글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어려운 외래어를 분별없이 남용하거나 신조어, 비속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한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아가야 한다. 공공 언어를 순화하고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띄어쓰기, 철자법 등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거리의 상징 간판을 보면 거의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어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울 정도이다. 자칫 잘못하면 외래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식하고 현대적이며 개척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한글조차도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훌륭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잘 다듬고 가꾸면서 사랑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훌륭한 한글을 가진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공통어가 되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창달하고 애국애족하는 길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